제 429 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2000년 4월 2일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딤전1:1)

⊗ 행동지침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새기가 되도록 한다.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 행 인: 이종윤 발 행 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 - 3 전화 (02) 517 - 7651 ~ 5 팩스 (02) 512 - 1225 http://seoulchurch.or.kr

교구일꾼수련회 6일 개최

강의… 교제… 결단과 헌신 나눠

교구일꾼수련회가 6일(목) 교회당에서 열린다.

이종윤 목사와 부교역자들을 강사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새 예배당 시대를 준비하며 교구 개편을 앞두고 우리 교회 교구 운영의 제반 사항을 살피고 교구 일꾼들의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 개최된다.

교구일꾼수련회에는 교구장, 지역장, 권찰, 다락방장 및 간사 등 교구 일꾼 전원의 참석이 요망된다.

수련회 일정은 오전 10시 30분 2층 예배실에서 준비 모임을 갖고 11시 개회 하여 이종윤 목사가 "21세기 새성전시대의 교구 운영에 대한 교회론적 조망"이라는 제하의 특강을 한다.

점심 식사 후에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고경선 목사의 인도로 찬양 및 레크레이션 시간을 통해 교제를 가진다.

2시부터 40분 간은 새 예배당 시대의 "교구 운영 체계와 전략"(정윤돈 목사), "서울교회 전도전략"(이규정 목사), "새가족 운영 계획"(지혜영 전도사)에 관한 발표가 있게 된다.

2시 40분부터 3시까지는 이성득 목사의 인도로 교구일꾼으로서의 결단과 헌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수련회는 교구위원회가 주관하며 김영준 장로가 준비위원장을 맡고 교구장 및 교구간사가 준비위원으로 위촉됐다.

리더양성반 이번 주 휴강

이번 주 서울성경대학 리더양성반(다락방장반) 강의는 휴강한다.

서울성경대학은 지난 주간 제 7학기 강의를 일제히 시작했으나 5일(수)이 공휴일인 관계로 수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는 리더양성반 강의를 이번 주 강의를 쉬게 됐다. 그러나 리더양성반을 제외한 여호수아반, 신명기반, 음악교실 강의는 이번 주에도 계속 된다.

4월 학습 · 세례식

4월 학습 · 세례식이 19일(수) I · II부 예배 시 거행된다.

이에 앞서 학습자를 위한 교육은 9일(주일) II부 예배 후, 세례자를 위한 교육은 16일(주일) II부 예배 후 각각 403호실에서 있다.

이에 미참한 성도는 17일(월) 오후 7시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문답은 18일(화) 오후 7시 403호실에서 있다.

4월 테마전도 직장동료초청하기

이 달 마지막 주일인 30일 테마 전도의 주제는 "직장동료초청하기"이다.

1월 '가장 친한 친구 한 사람 데려오기', 2월 '옆(앞 · 뒷)집 사람 모셔오기', 3월 '불신 남편 · 아내 모셔오기'에 이어 4월에는 '직장동료초청하기'를 테마로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도위원회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일을 테마전도주일로 전개하고 있다.

4월 행사 게시판

일자	행사
6일	교구일꾼수련회
8일	육사세례식 집례
19일	4월 학습 · 세례식
21일	교사기도회
23일	부활절예배 (성찬식, 감사찬양예배)
30일	테마전도주일
30일	새가족환영회
· 매주 월요일	목회자신학세미나
· 매주월 · 화 · 수 · 목요일	서울성경대학강좌
· 매주 토요일	70인전도대 훈련

민족복음화를 위한 육사 세례식 집례

4월 8일(토) 오후 2시 우리 교회 주관 육사교회서 당일 오전 11시 30분 교회당에서 육사행 버스 출발

금년도 우리 교회 후원으로 열리는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이 이달 4월 8일(토) 오후 2시부터 육사교회 본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실시되는 세례식에는 신입생도 60명과 재학생도 10명 등 육사생도 70명, 근무 지원부대 소속 신우 20명, 일반 성도와 학생, 입교자 등이 세례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세례식은 오후 1시 세례자교육에 이어 2시부터 드리는 예배 중 성찬식과 아울러 열리게 된다.

세례식 후 2부행사로 식당에서 친교 및 다과회가 진행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식 집례뿐 아니라 예배 진행과 친교 · 다과회도 주관하게 된다.

찬양대원을 비롯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당일 오전 11시 30분 서울교회당 앞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군복음화의 불씨라 할 수 있는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은 1993년부터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주관해 오고 있다. 특별히 육사세례식은 비전2020운동의 일환으로 군복음화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행사이다.

비전2020운동이란 2020년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국민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며, 진중세례식을 통해 매년 22만 명 이상의 장병에게 복음을 전하여 민족복음화에 기여하며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앞당기자는 데 초점을 맞춘 운동으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육사세례식은 민족복음화에 매우 의미있는 행사로 기대된다.

이사야 강해

복음의 축복

이사야 35장 5 - 10절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사 35:5 - 10)

이종윤 목사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서 1장부터 본문 35장까지를 한 단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탄식으로 시작한 이사야서는 35장에 와서 복음으로 인하여 땅도 인간도 회복하게 됩니다.

본문은 메시아 복음이 임하면 받을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 치유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소경된 자, 귀머거리, 저는 자, 벙어리들을 기적으로 고쳐주십니다(마 11:5). 그러나 성경은 육신의 회복 보다 영적 은혜에 더 치중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는 영안이 어두우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도 듣지 못하며 행위가 마치 절름발이 같고 벙어리처럼 복음을 듣고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을 보고, 듣고, 바르게 행하며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무엇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선지자는 먼저 이 말씀으로 시작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십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찬송할 줄 모르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예한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광야 같은 인생에 샘이 솟고 사막 같은 삶에 시냇물이 흐르는 윤택함이 있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광야와 사막 같은 인간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고 활기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6절).

이와 같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줍니다.

2. 성령이 높은 곳에서 부어질 것이다

"뜨거운 사막" 이란 신기루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은 광야의 객과 같아서 힘써 찾는 것이 신기루처럼 찾고 보면 모두가 거품과 그림자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구원에 참예한 자들에게 참 만족을 주는 못과 원천이 되십니다. 물과 시내는 생수의 강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사 32:15).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광야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물이 솟을 터인데(6절) 이것은 광야 같은 이방인의 마음밭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공급해 주고 사랑을 찾는 이의 가슴에는 사랑으로 만족시키십니다(7절). 복음은 뜨겁고 메마른 땅에 거처를 정한 시랑의 굴에 시냇물이 흘러 들어가 습지가 되어 유용한 식물이 자라나도록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이 생명수 강이 터져 흘러서 모든 것이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3. 신앙과 경건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사막에서 큰 길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사막의 여행자에게 길처럼 반가운 것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고 끝도 없고 방향도 없는 사막에서 큰길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에게 기적이 되시며 유일한 생명길이 되십니다. 복음의 축복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길이 열리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경건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길에 대하여 선지자는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이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다"(8절)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지 못한 이는 신앙과 경건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둘째,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미련한 줄 알고 주님만 의지하면 그가 곧 지혜자이니 그는 이 신앙의 길, 경건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셋째, 그 길에는 사자와 같은 장애물이 없습니다. 사막에 맹수가 없지 않으나 대로로 가는 자는 맹수가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고난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로 따라서 의의 길로 가면 해할 자가 없습니다. 이 길이 신앙과 경건의 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길의 결국은 영영한 희락이 될 것입니다(10절). 사막의 대로 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영적 기쁨입니다. 믿음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이 기쁨은 바빌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이고, 종말론적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모여드는 성도의 기쁨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사 1:2). 이 기쁨은 하늘과 땅은 회복되고 빼앗기고 짓밟힌 이스라엘 국토가 부활되며 백성의 고통과 슬픔이 치유되었을 때에 생기는 기쁨입니다.

오늘도 어둠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을 바꿔준 찬양대

최요섭(가브리엘찬양대)

어느 순간부터 나의 입에서 팝송이나 가요 대신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때가 있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봉사하게 되면서 나의 생활습관들 중에 하나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부모님의 권유로 서울교회로 교적을 옮긴 후 가브리엘 찬양대에 들어온 때가 95년도 봄, 화창한 이 무렵이었다. 그 당시 항상 세상 가운데에서 번민하던,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언제나 초라함을 느끼던 나에게 찬양대 봉사는 삶에 기쁨과 소망을 주었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내가 가브리엘찬양대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

가브리엘 찬양대는 다양함과 하나됨이 동시에 추구되는 곳이다. 우선, 구성원의 연령층이 폭 넓다. 특히, 그 중에서도 청년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에는 청년들과 장년들이 함께 만들어 내는 화음들, 열정 그리고 원숙함의 조화가 있다.

또한, 구성원들 각자의 개성이 매우 강하다. 하지만 각자가 자기 색깔을 드러내면서도 그것이 조화를 이룬다.

여기에는 지휘자이신 허희철 집사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신다. 그는 찬양대원들의 여러 가지 색깔을 잘 조율하여 찬양대가 하나되게 인도하신다.

따라서, 가브리엘 찬양대에는 자유분방함 가운데 질서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도 엄격함이 존재한다. 이렇게 내실을 다져가는 가운데 우리 찬양대는 지난 2월에 찬양대원수가 100명을 넘어서는 외적인 성장도 이룩하였다. 이 모든 것이 지휘자와 반주자를 비롯한 모든 찬양대원이 주안에서 하나가 되어 힘써 노력한 결과이다.

요즘은 부활절 예배의 찬양준비를 위해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 언제나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 영으로 드리는 예배, 주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가브리엘 찬양대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베들레헴찬양대를 바라보며

"아멘!"이 넘쳐나는 찬양

신동기(권사, 순례자편집위원)

겨우내 묵혀 있던 봄바람이 살랑 살랑 나무끝에 매달려 연초록 새 생명으로 신발끈을 풀고 있다. 쏟아지는 봄볕에 참았다 토해 내는 백목련의 웃음 소리는 하늘을 향해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

주일 저녁 찬양예배 때면 이 봄의 꽃보다 더 곱고 더 아름다운 생기를 담고 베들레헴찬양대의 찬양이 울려퍼진다.

찬양예배가 시작하기 전 베들레헴찬양대원들의 입장하는 모습은 마치 하늘 천군들의 거룩함 같아 그들의 발걸음은 하늘로 이어지는 장엄하고도 위풍당당한 행렬이기도 하다.

검은 예복의 자주빛 넥타이는 주님의 보혈의 흔적을 몸에 짊어지며 정한 마음을 고백하는 메시지인듯 하다.

그들의 씩씩하고도 기품있는 행렬은 서울교회의 미래를 제시하는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요 보배들이리라.

앞으로 지어질 새 예배당의 찬양대의 비전은 베들레헴찬양대원, 그들의 성실함과 신실한 믿음으로 꽉찰 것이며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풍성한 찬양대가 될 것이다.

연습시간이 짧아 어쩌다 작은 실수를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 어쩌면 더 정겹고 사랑스러우며 성도들의 많은 응원과 갈채 속에서 "아멘!"이 더 크게, 아주 크게 터져 나오는 은혜로운 찬양대이다.

아침 일찍부터 봉사하기 위해 나왔으련만 늦은 시간에까지 섬기는 그들의 헌신이 하늘에 닿아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삶 속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원들이 되시길 기도해 본다.

봄의 서정

소 망

나소정(청년부)

"변화는 아름다운 힘"이라는 광고 문구가 유행한 적이 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민하게 세상에 대처하지 않고는 도태되기 쉬운 요즈음이기에 수긍이 간다. 그러나 내가 힘을 얻은 구절은 따로 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느8:10).

천년이 돌아와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더니,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겨우내 웅크리고 있었던, 그러나 살아있었던 식물들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비밀 하나를 엿본 듯 느껴지곤 한다. 혹한을 이겨내고 꽃과 잎사귀를 틔워내는 식물들의 정직함과 그 지고지순한 충직함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하지 않을까? 힘껏 봉오리를 터뜨리기 위해 지난 가을 팔랑거리던 그 수많은 잎들을 떨구어낸 정직함과, 자신이 심겨진 땅 속에서 취할 것을 잘 분별하여 아는 현명함을 말이다.

푸르게 약동하는 이 봄의 세상을 보고 있으면, 작은 미물에도 유정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아버지의 섭리가 역사하심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화창한 봄날의 하늘처럼 아름다운 약속의 은유가 또 있을까.

우리 안의 지층이 크고 작은 변화를 겪는 이 봄,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주신 좋은 것들은 화석처럼 지층 깊숙히 간직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겉으로 드러나길 바래보는 것이다.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2000년 태신자 명단(지난 주 계속)

전도자	태신자
이남북	문언수

4월의 테마전도 '직장 동료 초청하기'

전도가 쉬운 3가지 이유

이규정 목사(전도위원회 지도)

서울교회 성도들께서는 전도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첫째는 말씀 중심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양육받을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자의 축복을 확실히 그리고 듬뿍 받은 성도들입니다.

복음적이며 성경중심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학문적 지고성과, 성령의 충만을 겸비하신 목사님,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목사님,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향한 비젼을 가지신 목사님을 직장 동료들에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큰 일을 하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출석하는 교회를 정하는 것은 새 집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집은 나의 육신이 거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나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따라서 영적 체험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느 교회 다닙니까?"라는 질문을 꼭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우리 서울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열린 사고와 선진 사역이 있지만 신앙은 순수한 복음주의 노선을 견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을 많이 한다고 자부해도 좋은 교회입니다.

비전2020운동, 기독교 교도소 설립추진, 농어촌 100교회 운동, 탈북자를 위한 U.N청원 서명운동, 목회자신학 세미나 등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구체적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그리고 다른 전도의 현장과 실제에서 우리 서울교회를 반드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전도에 있어서 영적인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전도의 현장에서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구령(救靈)의 열정입니다.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꼭 필요합니다. 열정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전도는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은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사명이란 말이 더 적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체험한 자는 누구나 다 전도해야하며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열정으로 뜨거워져서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는 교회,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교회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령의 열정으로 방패 삼고 교회와 목사님의 자랑을 영적 무기삼아 소중한 직장의 동료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 성도들의 전도에 대한 열정과 기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자랑합시다. 우리 교회를 자랑합시다, 담임 목사님을 자랑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구원의 예수님을 크게 자랑합시다.

사순절 묵상

고난의 종교

고난 없는 종교는 문화적 행사나 상업적 놀이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과 인간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이지 행복 추구나 하는 기복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려지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며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도 한다.

인본주의적인 신학 입장을 주장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도구요, 인간에게 기쁨이나 선물하는 장식물 정도로밖에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 동정 ■

* 이종윤 목사는 7일(금) 총회 선교동역자회의를 주관한다.
* 주경자 집사는 강남노회 여전도회연합회 회장으로 피선됐다.
* 강민희 집사(시온찬양대 지휘)는 2일(주일)부터 할렐루야찬양대 피아니스트로 봉사한다.
* 전기섭 장로 · 원영애 집사 가정은 교회합창곡집(명성가편1) 30권을 기증했다.
* 박소현 성도(박두호 장로 · 한성옥 집사 딸)는 14일(화) 득녀했다.
* 이번 주 식사는 전수자 권사, 민헌기 · 박소현 성도 가정에서 제공했다.
* 마리아전도회는 3일(월)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 제 1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❷ 4월 3일 - · 제 1교시 / 사도행전 연구(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국제사회 발전을 위한 한국 사회의 현주소와 바람직한 역할 (유은상교수)

❸ 4월 10일 - · 제 1교시 / 사도행전 연구(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청사진과 교회의 역할(전호진 교수)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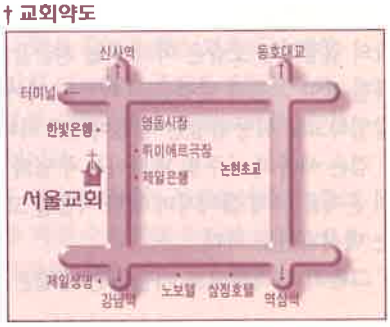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과 절제와 참회의 삶을 살도록
2. 교구활성화와 교구일꾼들을 위해
3. 육사세례식과 비전2020운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Ⅰ부	오전 9시
	Ⅱ부	오전 11시
	Ⅲ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Ⅰ부	오전 11시
	Ⅱ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 교회약도